

# 순창군, 섬진강변 '오토캠핑장' 만든다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본격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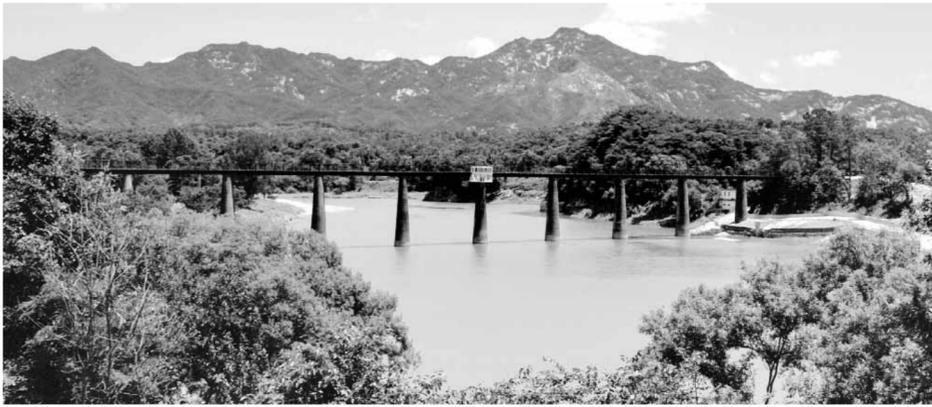
순창군은 21일 "사업비 155억을 투입해 옥출산 전망대와 산책로, 쉼터 등을 설치하는 '숲속 체험지구 조성사업'과 캠핑객이 야영할 수 있는 캠핑장, 캐러밴, 방갈로 및 부대시설을 갖춘 '섬진강 향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2년 17억원을 투입해 숲속 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옥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등산로 개설과 전망대 조성을 끝마쳤다.

또한 건강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은 2012년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114억원을 들여 올 초에 착공,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가 오토캠핑장은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향가마을 6만1700여㎡에 야영장 42면과 캐러밴 6대, 방갈로 6동이 들어선다. 또 섬진강 자전거 길과 연계한 자전거 쉼터, 생태연못, 놀이터, 체육시설, 산림욕장 등도 조성된다.

현재 토목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40%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축공사가 한창이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인 순창시 풍산면 대가리 향가유원지 일원.

## 풍산면 향가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본격 추진

### 자전거 도로·터널·목교 연계... 편의 시설 조성

특히 군은 섬진강 자전거 도로가 향가터널을 지나는 점에 착안해 자전거 도로와 향가 오토 캠핑장을 연계해 관광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순창군의 관광개발사업은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섬진강을 제2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면서 "향가 오토 캠핑장이 조성되면 순창의 관광 인프라가 한층 두터워져, 도시민이 휴양하면서 섬진강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남원시, 오감만족 '아트 밸리' 조성한다

## 광한루원·함파우 주변

### 한옥지구·예술촌·미술관 등

남원시가 오감만족형 '아트 밸리'(Art Valley)를 조성한다.

남원시는 21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재생을 통한 문화관광 융성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아트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광한루원 주변에 한국 정서와 남원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촌(藝村)과 '예가람길'(예술이 감동처럼 흐르는 길), 함파우 '생명의 노래촌'에는 김병중 생명 미술관·남원도예촌·소리명상관 등을 갖추게 된다.

남원예촌은 광한루원 북문 구 도심권 1만7000㎡에 272억5400만원을 들여 2016년까지 전통 한옥지구와 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전통 한옥 숙박동, 다목적 전시체험관, 전통정자·연못, 쉼터, 실개천 등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전통한옥에서의 여유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는 계획이다.

'예가람길'은 구 군청과 광한루원 북문 인근에 2016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야외 거리공연, 판매시장을 운영한다.

거리 곳곳에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문화공간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특색 있는 구간을 만들어 관광객을 불거리를 제공한다.

남원 시립 김병중 생명 미술관은 35억원에 들어 부지 8000㎡에 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설치한다.

2016년 완공되면 공립 미술관 건립으로 문화예술도시인 남원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완공예정인 소리명상관은 농악 공연장, 전통한옥 숙박촌, 소리 명상길, 생명의 노래길, 문화 예술 쉼터공원, 실개천 등이 조성된다. 특히 소리공연장을 건립해 농악 관련 전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남좌도 농악의 발상지인 남원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남원시 아트밸리 조성 계획



남원 도예촌은 올 연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도예인에게 분양해 도예빌리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광한루원 주변과 접근성이 좋은 함파우 등에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오감만족형 문화 및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면 남원의 관광산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군산시 설립도서관

### 작가수업 공모 선정

군산시 설립도서관(사)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내 생애 첫 작가수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설립도서관은 사업비 770만원을 지원받아 8월부터 12월까지 문학창작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화와 소설 창작활동 지원과 더불어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작가수업을 진행할 이준호 작가는 계간지 작가세계(1994)에 소설이, MBC창작동화대상(2001) 장편동화가 당선돼 등단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장편동화 '하늘로 올라간 미꾸라지'와 '할아버지의 뒤주', '그해 여름, 님새'가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작가수업을 통해 독서문화를 진작시켜 교육·문화의 지속적 거점으로 도서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국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남 소식

# 토목직 몰리고 행정직은 기피

## 나주시 승진 인사 시스템

### 특정 부서 소외 개선해야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인사 때 소외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의 인사에 이어 18일자로 팀장급(6급) 74명에 대해 승진자 없는 인사이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는 '정치공무원 배제'를 인사원칙 1순위로 내세우고 단행했다. 일부 팀장의 전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복 인사'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들의 과거 행적을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승진이 보장되는 특정 부서에만 희망자가 다수 몰려 '빈약한 부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승진 우선순위로

좁은 팀장자리를 놓고 팀장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목직 사무관 승진을 위한 마지막 코스로 좁히는 건설과 환경토목 팀장자리에는 7명의 희망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연말로 인사를 미룬 상태다.

반면 행정부서 B팀장 자리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고, 인사가 이뤄지기 전 팀장마저 '업무가 힘들고 승진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팀으로 전출을 희망해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인사분위기에 속한 직원들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인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인사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주시청 한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도 많다"며 "그들이 우선되는 공직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나주=정현원기자 chung@



지난 19~20일 광양시를 방문한 중국 푸저우시 대표단.

## 광양, 中푸저우시 공무원 우호 방문

### 국장급 간부 등 9명 1박2일간

### 농업 현장 방문·투자유치 협의

광양시의 우호도시인 중국 푸젠성(福建省) 푸저우(福州)시 쉬이징 주임(부시장급) 일행 9명(국장급 이상 간부 5명, 기업체 대표 4명)이 지난 19~20일 2박 2일 일정으로 광양시를 방문했다.

이번 푸저우시 대표단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과 경제 등 교류분야를 확대하고,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광양을 찾았다.

푸저우시 대표단은 봉강면 농업 시험포장 현장을 시찰하고, 농업인 교육관에서 광양시 홍보 동영상 시청, 농업 정책

과 농촌 개발사업,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광양항과 광양제철소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제 우호교류 실무회의를 가졌다.

푸저우시 쉬이징 주임은 "이번 광양 방문을 통해 양 도시가 농업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인후 부시장은 "오는 11월 광양시 공무원의 푸저우시 연수 파견을 공식 요청해 모든 체류비를 푸저우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며 "중국 문화와 푸저우시의 문화, 관광,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예정이어서 상호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마로 494-1 (마동정수장 앞)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